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제주감귤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택 · 강지용**

요 약

UR타결에 따른 제주지역 감귤산업의 대응방안에 관해 유통구조의 개선방안과 수출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알아 보았다. 우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생과용 감귤의 시기별, 소비지역별 출하조정이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공동출하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수송비의 절감을 위한 수송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감귤의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단순 생산수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철저한 시장조사 등 적극적인 시장촉진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입업체는 다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수출물량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출후 사후관리 철저는 물론이고 수입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과학재단 지정 지역협력 장려연구센터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결과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김경택은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이며, 강지용은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이다.

I. 서 론

UR협상과 더불어 붙어닥친 오렌지 및 오렌지 과즙 수입자유화의 내용을 보면 당장 내년도인 '95년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정해진 키타물량('95년 15,000t, '96년 20,000t, '97년 25,000t)을 수입한 다음 '97년 7월 이후부터는 '97년 수입키타량을 기준 하여 2004년까지 매년 12.5%씩 증가하되 키타물량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키타초과 물량은 99% 관세를 적용하되 '95년 기준으로 2004년까지 50%가 되도록 매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97년 7월 이후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키타량 이상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 주스는 '97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개방된다. 이로 인해서 '97년 하반기부터는 제수산 가공용 감귤수매는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오렌지 및 오렌지 주스가 수입됨으로써 제주에 있어서 基幹産業인 감귤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입자유화로 인한 수요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생산농가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95-2004년도까지 예상 피해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감소, 고용효과 그리고 관련산업 침체 등을 고려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농업발전의 견인적 역할을 하는 감귤산업의 침체는 제주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제주도 농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감귤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다. 수출을 통해서 고품질의 감귤을 저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강화는 결국 수출과 연계되어야 하며 정책적 목표도 수출농업을 지양해야만 한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제주감귤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함으로써 침체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감귤수출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 제주감귤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II. 시장개방의 내용

1. 농산물협상과 시장개방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국가차원의 식량안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GATT 구조하에서도 각국이 농업부문은 각종 예외 규정을 기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것은 농업부문이 고용·국토보존·지역 균형발전 등 경제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NTC(Non Trade Concerns)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누적되는 재정적자와 증가일로에 있는 무역적자의 해소 방안으로 농산물도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UR에서 농산물 분야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외 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보장, 국내보조금의 감축, 수출보조금의 감축 등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이루어진 농산물 협정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다. 그러면 UR 농산물협상타결의 주요 내용을 알아 본 후, 농산물시장 개방의 파급 영향을 살펴본다.

1) 시장접근(Market Access)의 협상타결 내용

UR 농산물협상 최종협정문에는 관세화를 전제로 기준년도(1986~88)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를 설정하고, 향후 10년(1995~2004)간 24%를 감축(최저 감축폭은 10%)함과 동시에 기준연도 동안의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의 3%이상인 품목의 경우는 기준기간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인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 CMA)을 보장하고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은 초기년도에 국내소비의 3%에서 최종년도의 5%까지 확대토록 되어 있다(〈표1〉참조).

〈표1〉 시장접근의 보장

구 분	기 준	이행기간	증 량 폭	이행방법
현행시장접근 (CMA)	1986~88 평균 수입량	'995~2004	기존 수입량 유지 혹은확대	과거의 실제 수입량 보장
최소시장접근 MMA	1986~88 평균 소비량	1995~2004	초기년도 3% 에서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저세율에 의한 관세할당 방법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1994. 1.

2) 정부보조금의 협상타결 내용

①수출보조 분야의 협상타결 내용

UR 농산물협정이 한국의 농산물수출에 입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한국이 농산물 수출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곡물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해서 잉여농산물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채소류, 화훼류, 과일류 등은 신선도의 유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근접지역으로의 수출로 한정되어 있다.

수출보조금의 감축문제 또한 UR 농산물협상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보조는 1986~9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1995~2000년의 이행기간 재정지출 기준으로 36%를 연도별로 감축하고, 물량 기준으로 21%를 연도별로 감축한다(〈표2〉참조). 단,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이행기간은 1995~2004년인 10년간이며, 재정지출 기준으로 24%, 물량 기준으로 14%를 연도별로 감축한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정책 중 수출 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축대상이 될 만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보조금 감축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표2〉 수출보조감축

구 분				일반원칙(선진국)	개도국우대
기	준	년	도	1986-1900년 5개년평균	1986-1990 5개년평균
감	축	목	표	금액 : 36%, 물량 : 21%	금액 : 24%, 물량 : 14%
감	축	이	행	기간	10년간(1995-2004)
감	축	방	법	연도별 균등감축	연도별 균등감축

② 국내보조 분야의 협상타결 내용

UR 농산물협상 타결이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 번째 영향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다. 두 번째 영향은 각종 농축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조치와 관세상당액의 감축에 따른 시장개방과 수입농산물의 내수시장으로의 유입이다.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UR협정에서는 국내보조와 관련된 정책을 일정기준에 따라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감축대상 보조정책은 정부수매 등 시장가격지지와 감축대상 직접지불, 기타 감축대상 보조로 나누어진다.

현재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농산물에 지원하고 있는 감축대상 보조금은 1조 7,186억원이다(〈표4〉참조). 이 감축대상보조금은 10년에 걸쳐 13.3%만큼 줄여 2004년에는 1조 4,900억원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한편 허용대상정책은 일반서비스 등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 Program, GSP)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Direct Payments to Producers, DP)로 나뉘어 진다. 허용대상으로 분류된 정책들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일반적 기준은 1) 소비자로부터의 이점이 아닌 공공재정에 의한 보조이어야 하고, 2)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구사업, 병해충방제, 교육훈련, 하부구조의 개선, 영세민에 대한 식량지원 등이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형태는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 소득보험 및 최저소득의 보장, 재해구호, 탈농보상, 휴경지원 등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 기준 하에 정부에서 지급되는 직접지불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중곡가제에 의한 시장가격지지도 허용대상정책이 아니므로 감축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3〉 UR 농업협정에서의 국내 보조정책의 분류

감축대상정책		I. 시장가격지지 II. 감축대상 직접지불 III. 기타 감축대상 보조
허용대상정책	정부서비스	I. 일반서비스 : 연구 방제, 방역 등 병해충 예방 교육 및 훈련 지도, 홍보 검사 유통촉진 II. 국내식량 구호 III.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허용대상 직접지불	I. 생산증립적 소득지지 II. 소득보험 및 소득 안정화 시책 III. 재해복구 및 구호 IV. 은퇴 및 탈농 지원 V. 휴경보상 VI.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VII. 환경 보존 관련 지원 VIII.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분석, 1993. 12.

〈표4〉 품목별 감축대상보조금 현황

구분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합계
보조액	15,684	523	729	226	24	17,186
총생산액대비비중	24.8%	17.4%	34.1%	79.9%	53.3%	

자료 : 경제기획원, 대외협력위원회 보도자료, 1994. 2. 15.

2. 오렌지 및 감귤류 UR협상결과

1) UR협상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다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감귤에 주로 영향을 미칠 품목은 오렌지와 오렌지주스이다. 이들 품목은 '97년 7월부터 높은 관세를 물리지만 수입은 자유화된다.

오렌지는 '95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현재 관세율인 50%의 관세를 물려서 '95년에 정해진 수입쿼타량 한도 내에서 수입하기로 했다(〈표5〉참조). 1998~2004년까지 쿼타량 증가율은 연간 12.5%이다.

그러나 '97년 7월부터는 자유화가 되면서 수입쿼타물량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 단, 자유화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98년의 경우 '97년 수입하기로 한 쿼타량 2만5천톤의 12.5%인 3천1백25톤을 추가해 모두 2만8천1백25톤을 50%의 관세율로 수입하고, 쿼타량 이상의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대략 84%의 관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즉, 수입자유화 이후 쿼타량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95년을 기준으로 99퍼센트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2004년까지 관세율을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정해진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생산자 단체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수입권을 갖는 무역)을 통해 수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다.

만다린 등 기타 감귤류의 수입개방 내용을 보면 쿼타량에 의해서 '95년 1,258톤을 시작으로 2004년에 2,097톤을 수입해야 한다. 쿼타량에 대한 관세율은 50%이다. 쿼타 초과량은 '95년기준 16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04년까지 144%가 되도록 매년 감축시켜야 한다.

한편 오렌지주스는 '95년에 5만톤, '96년에 5만5천톤, 그리고 '97년 1월~6월까지 3만톤의 쿼타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97년 7월 이후부터는 60퍼센트의 관세율로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된 다. 그런데 국내산 감귤주스의 생산원가는 미국 및 브라질 산 오렌

지 주스의 국내수입가격에 비해 두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따라서 오렌지주스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부터 주스 생산용 농축액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개방 내용

구 분	쿼타량(톤)			쿼타관세(%)	초과관세(%)	
	'95	'97	2004	'95. 1-'97. 6	'95	2004
오렌지	15,000	25,000	57,017	50	99	50
감귤류	1,258	1,444	2,097	50	160	144
오렌지주스	50,000	30,000		50		

* '97년 6월말까지 쿼타량이고, '97년 7월이후는 완전히 개방된다.

이렇게 오렌지, 감귤, 오렌지주스가 수입자유화 되면 우리의 감귤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97년 6월 수입자유화 이전까지는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시기를 국내산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조절할 경우 국내 생산농가에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7년 7월 이후 수입이 자유화되면 아무리 관세가 높다 해도 바나나 수입개방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물량이 초기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차츰 관세가 줄어들면 수입량이 늘어나 제주 감귤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2) 개방의 파급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감귤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농가의 피해액은 1995년 746억원에서 2001년 1853억원으로 증가한다. 1995-2001년 7개년간 총 피해액은 7,949억원으로서 단일 지역에서 입는 피해액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표6〉참조).

수입개방 초기년도인 '95년에 오렌지 수입물량은 1만 5천톤에 불과하지만, 2001년에는 그 13배 이상이나 되는 20만 1천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량으로 제주 감귤의 자급률은 '95년의 98%에서 2001년에 74%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6〉 감귤의 개방피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산량(천톤)	564	628	592	639	574	615	552
소비량(천톤)							
- 생과용	471	538	574	601	627	655	683
- 가공용	103	103	76	69	59	63	65
수출량(천톤)	5	6	6	6	6	6	6
수입량(천톤)	15	20	64	38	118	110	201
자급률(%)	98	98	91	95	84	86	74
생산자잉여 감소액(억원)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993. 12.

Ⅲ. 감귤 생산동향

1. 제주감귤의 생산동향

제주감귤의 재배면적은 1985년의 16,969ha에서 1994년에 21,479ha로 지난 10년간 약 26.4%나 증가하였다. 이 면적은 제주도 총경지면적 56,803ha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당 재배면적은 0.8ha로서 제주도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 1.43ha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동기간 동안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감귤재배농가수도 제주도 총 농가수 39,820호의 66.8%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재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동향

년 도	재배농가(호)	재배면적(ha)	생산량(M/T)
1985	23,332	16,969	394,300
1986	23,685	16,959	333,100
1987	24,632	17,614	464,660
1988	24,892	17,829	412,660
1989	25,541	19,335	746,400
1990	25,616	19,414	492,700
1991	25,818	19,605	556,350
1992	29,541	21,727	718,700
1993	26,571	21,479	619,000
1994	26,596	21,448	548,945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표 8〉 생산량, 가격, 조수입동향

년 도	생산량(M/T)	경락가격(원/kg)	조수입(억원)
1985	394,300	443	1,242
1986	333,100	545	1,416
1987	464,391	508	1,668
1988	412,660	694	2,106
1989	746,700	402	2,020
1990	492,700	895	3,151
1991	556,350	1,010	4,251
1992	718,350	512	2,623
1993	619,000	810	3,948
1994	548,945	1,208	5,4521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감귤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살펴보면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89년의 kg당 400원대에서 1994년도의 기록적인 12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락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인은 생산량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1994년의 경우 적정생산의 결과 조수입 5,500억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감귤 조수입은 제주도농업 총조수입 8,359억원의 53.4%를 차지하고 있다(〈표 8〉참조).

제주도 감귤농가의 평균재배면적은 0.8ha(2,400평)이고 1ha(3,000평) 이하가 전체 감귤재배농가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2ha 이하가 전체의 96%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호당 평균재배면적은 전국의 1.3ha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이것은 감귤농업 기계화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9〉참조).

〈표 9〉 규모별 재배농가 현황(1994)

계	500평 以下	501- 1,500평	1,501- 3,000평	3,001- 6,000평	6,000- 9,000평	9001- 30,000평	30,000평 以上
25,596	3,654(14%)	9,644(36%)	7,342(28%)	4,681(18%)	900(3%)	358(1%)	15

자료 : 제주도

〈표10〉 감귤 저장고 현황(1994. 12. 31 현재)

(단위 : 톤, %)

구 분	감 귤 저 장 고			감귤생산 농 가 수	저 장 고 보 유 율	저장능력 (톤/저장고)
	저장고수	평 수	저장능력			
제 주 시	1,347	23,475	23,475	3,422	39.4	17.4
서귀포시	3,115	65,957	65,957	8,958	34.8	21.2
남제주군	4,464	86,843	86,848	8,814	50.6	19.5
북제주군	2,901	51,903	51,903	5,402	53.7	17.9
합 계	11,827	228,178	228,178	26,596	44.5	19.3

자료 : 농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한편 1994년말 현재 제주도내 감귤저장고 수는 11,827동이며 그 저장능력은 228,178톤이다(〈표10〉참조). 그리고 감귤생산 농가의 저장고 보유율은 44.5%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당 저장능력은 서귀포시가 가장 크고, 제주시가 가장 작다. 저장고 보유율은 북제주군이 가장 높고 서귀포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장을 통한 시기별 출하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장기술개발과 더불어 저장시설 확대지원이 필요하다.

〈표 11〉 생과용 감귤 계통처리 현황

구 분	1991년산		1992년산		1993년산		1994년산	
	수량(톤)	구성비(%)	수량(톤)	구성비(%)	수량(톤)	구성비(%)	수량(톤)	구성비(%)
농협	131,549 (1,274)	30.3 (30.2)	234,886 (2,000)	44.4 (37.2)	220,121 (4,276)	42.3 (46.9)	183,513 (7,257)	39.8 (53.9)
일반	302,362 (2,950)	69.7 (69.8)	293,975 (3,376)	55.6 (62.8)	300,765 (4,836)	57.7 (53.1)	277,107 (5,963)	60.2 (45.1)
계	433,911 (4,224)	100.0 (100.0)	528,861 (5,376)	100.0 (100.0)	520,886 (9,112)	100.0 (100.0)	460,620 (13,220)	100.0 (100.0)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생식용 감귤의 계통 출하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 감협 및 단협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은 생과용 전체 출하량의 30%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계통출하 비율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4년산인 경우 계통출하 비율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감귤만을 따로 독립시켜 보면 계통출하 비율이 1991년도에 30%에서 1994년도에 55%로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1〉참조).

계통출하를 통한 생과용 감귤의 소비지역별 출하량을 보면 〈표12〉와 같다. 6대도시의 계통출하량 비율은 '92년, '93년, '94년에 각각 74.1%, 74.1%, 70.2%로 6대도시에 감귤출하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지역 중에서도 경남, 전북지역이 타지역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2〉 생과용 감귤의 소비지역별 계통출하량

(단위 : 톤, %)

구	분	1992년산		1993년산		1994년산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6 대 도 시	서 울	70,627	30.3	63,591	30.3	51,419	29.2
	부 산	21,749	9.3	20,543	9.3	16,238	9.2
	대 구	37,693	15.8	32,246	15.8	23,680	13.5
	광 주	21,942	9.4	19,899	9.4	14,255	8.1
	대 전	17,492	7.5	15,369	7.5	11,318	6.4
	인 천	5,405	2.3	5,518	2.3	6,758	3.8
기 타 지 역	소 계	173,908	74.7	157,166	74.7	123,668	70.2
	경 기	3,030	1.3	3,435	1.3	5,378	3.1
	충 북	5,439	2.3	5,145	2.3	4,077	2.3
	충 남	3,114	1.3	3,884	1.3	3,129	1.8
	전 북	12,729	5.5	12,071	5.5	9,962	5.6
	전 남	2,576	1.1	2,494	1.1	1,915	1.1
	경 북	10,698	4.6	6,837	4.6	4,421	2.5
	경 남	16,683	7.2	18,431	7.2	15,717	8.9
	군 남	2,052	0.9	2,420	0.9	1,828	1.0
	기 타	2,657	1.1	3,965	1.8	6,161	3.5
합	계	232,886	100.0	215,845	100.0	176,256	100.0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1994년산 소비지역별 감귤 경락가격은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 서울, 대전, 인천, 경남 등에서 높게 형성되고 있다. 동년도에 소비지역별 농가 수취가격을 보면 경북, 서울, 대전, 인천 등의 순이다. 또한 경남, 충북, 경북, 부산 등의 순으로 유통비용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경북과 서울 지역이 계통출하의 효율이 제일 높음을 알 수 있다.

제주감귤의 수출은 199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그 역사가 짧은 편이다. 더욱 수출물량도 1천톤 정도로서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또한 1990년에서 1994년까지 5개년간 수출로 인한 손실액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표 14〉참조).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데는

수출 노하우의 부족, 신시장 개척비용, 해외시장정보의 부족, 불평등 계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주로 캐나다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철저한 원인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감귤수출 업무는 제주교역에서 관장할 것인바 과거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손실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표13) 생과용 감귤의 소비지역별 계통출하 경락가격

(단위 : 원/15kg)

구	분	1993년산		1994년산		유통비용
		경락가격	수취가격	경락가격	수취가격	
6 대 도 시	서 울	12,282	9,618	18,628	15,523	3,105
	부 산	12,285	9,658	18,106	14,884	3,222
	대 구	11,810	9,374	17,350	14,374	2,976
	광 주	12,014	9,395	17,124	13,949	3,068
	대 전	12,281	9,608	18,528	15,460	3,148
	인 천	12,131	9,627	18,447	15,299	3,175
기 타 지 역	경 기	12,532	9,936	17,527	14,517	3,010
	강 원	12,239	9,440	17,572	14,359	3,213
	충 북	11,499	8,897	17,560	14,316	3,244
	충 남	11,522	9,066	17,319	14,247	3,072
	전 북	12,222	9,596	18,033	14,898	3,135
	전 남	12,066	9,630	16,992	13,994	2,998
	경 북	12,979	10,348	19,727	16,487	3,240
	경 남	12,141	9,519	18,307	15,029	3,278
	제 주	11,780	8,902	17,112	14,086	2,153
전 국 평 균		12,157	9,552	18,130	15,013	3,117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표14) 제주감귤 수출현황

년 도	수출물량 (톤)	수출손실액 (원)	손 실 보 전 내 역(원)			
			국 고	지방비	농협중앙회	수출조합
1990	162	84,245	—	—	84,245	—
1991	1,077	309,482	110,000	50,000	47,000	102,482
1992	1,060.2	0	—	—	—	—
1993	983	200,609	128,609	72,000	—	—
1994	926	396,292	235,110	96,000	65,182	—

자료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94년산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1995.

2. 세계의 감귤류 생산동향

1) 브라질의 생산동향

브라질은 오렌지쥬스의 최대수출국이다. 이 나라의 오렌지 생산은 이 나라가 주요공급국인 FCOJ(냉동농축오렌지쥬스)의 미국수요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브라질의 오렌지 농업은 지난 30년간의 호황을 벗어나 '90년 이후 세계적인 오렌지 과잉공급으로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최고로 오렌지 생산량이 많은 나라이다. 미국은 1994-95 시즌에 1,600만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의 감귤을 생산하였다. 물론 미국의 감귤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플로리다 지방의 오렌지 농원이 한해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는 미국 플로리다 지방의 한해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하자 식부면적을 계속 확대시켜 현재 100만ha를 초월하고 있다. 따라서 1993-94 시즌에는 미국과 브라질 두나라가 모두 풍작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 오렌지 및 오렌지과즙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렌지가 전부 과즙용은 아니다. 생식용의 경우 과즙용과는 달리 맛과 외관이 좋으며, 생산비도 과즙용보다 더 비싸지만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95 시즌에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량은 세계 최대인 1,644만톤이며, 이 중 가공용이 약 63%인 1,030만 톤이다. 생과 소비량은 36.9%인 607만 톤으로 전년도에 생과 소비량에 비해 약 41%나 증가하였다. <표15>는 가공용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반면에 생과용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량은 9만 5천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37.5%나 감소하였다. 1993/94시즌의 경우 미국과 브라질의 풍작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하여 전년도에 비해 62%나 늘어난 15만 2천톤을 수출하고도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훨씬 적었다. 이렇게 볼 때 오렌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오렌지의 생과수출은 외관이 나쁘고 생식용 품종이 적고, 선과포장, 수송수단 등의 정비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당장 증가할 기미는 없다.

〈표 15〉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 및 소비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생 산 량	수 출 량	가 공 용	생과소비량
1991/92	16,327	95	11885(73%)	4,347
1992/93	15,778	94	10,987(70%)	4,697
1993/94	14,818	152	10,346(70%)	4,320
1994/95	16,436	95	10,269(63%)	6,072

()안은 가공용대 생산량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 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농축과즙의 수출은 1993년에 105만톤으로 유럽에 58%, 미국에 29%, 일본에 5%가 수출되었다. 그리고 톤당 수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44% 떨어진 \$ 657(일본으로의 수출가격은 \$ 528)로 급락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식부면적을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에 식부한 면적이 '96년 말까지 매년 1,000만 그루씩 생산수령에 달하기 때문에 오렌지 생산공급 과잉상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산 생식용 오렌지는 생산기술이 떨어져 외관만 보고서 브라질산 오렌지 생과를 수입승인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은 생산량에 비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2) 미국의 생산동향

감귤류가 수입개방이 되면서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할 상대국은 미국이다. 브라질의 경우 생산량의 70%이상이 과즙용이기 때문에 생과용은 미국산 등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대국이다.

〈표 16〉 미국의 감귤류 생산동향

구 분		수확면적 (Acres)	생산량 (천톤)	생식용 (천톤)	가공용 (천톤)	생산가액 (천달러)
아리조나	1992-93	37,700	340	226	114	65,475
	1993-94	37,600	364	237	127	79,184
	1994-95	35,400	248	195	53	63,518
캘리포니아	1992-93	255,900	3,662	2,460	1,202	745,112
	1993-94	256,500	3,569	2,353	1,216	745,817
	1994-95	263,600	3,462	2,303	1,159	769,526
플로리다	1992-93	639,300	11,175	1,704	9,471	1,323,574
	1993-94	665,800	10,484	1,643	8,841	1,400,151
	1994-95	731,700	12,050	1,639	10,411	1,402,547
텍사스	1992-93	14,510	97	75	22	17,012
	1993-94	18,210	144	108	36	20,263
	1994-95	21,930	230	158	72	20,367
미국전체	1992-93	947,410	15,274	4,465	10,809	2,151,173
	1993-94	978,110	14,561	4,341	10,220	2,245,415
	1994-95	1,052,630	15,990	4,295	11,695	2,255,958

자료 : U. S. Dept. of Agriculture, Citrus Fruits-1995 Summary, Sep. 1995.

1994-95시즌의 감귤 생산량은 약 1,600만톤이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것이고 1992-93시즌과 비교할 때 약 5%나 증가한 것이다(〈표16〉참조). 1994-95시즌의 생산량은 오렌지재배 역사상 2번째로 많은 양이며 이것은 플로리다주의 기록적인 오렌지 생산량과 그레이프후르트 생산량에 기인한 것이다. 실제로 플로리다주의 감귤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18%나 증가하였다. 플로리다에서의 단위당 수확량의 증가와 수확면적의 증가가 이러한 기록적인 생산량을 유도하였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의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나 늘어났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재배면적은 3%나 증가하였지만 단위당 수확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의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나 감소하였다. 텍사스에서의 오렌지 및 그레이프후르트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89년 寒害 피해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94-95시즌 아리조나에서의 오

렌지 및 그레이프후르트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1994-95시즌에 미국 전체 감귤 생산의 75%를 플로리다에서 생산하였으며, 22%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였다. 또한 아리조나에서 2%, 그리고 텍사스에서 나머지 1%를 생산하였다.

1994-95시즌에 생산한 감귤의 가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즉, 선과장 수취가격(packinghouse-door equivalent) 기준으로 \$22억 6천만이다. 레몬과 탠저린을 제외한 모든 감귤류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을 가져왔다. 실제로 네이블 오렌지 가격은 상자당 \$5.26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나 하락하였다. 발렌시아 오렌지도 박스당 \$6.44로 전년도에 비해 가격이 1%나 하락하였다. 그레이프후르트의 경우 박스당 \$4.18로 15%나 하락하였다. 레몬의 가격도 박스당 \$11.02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1%나 하락하였다.

1994년도의 수출액 및 수출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17>은 미국의 주요한 해외시장과 수출액 및 수출물량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는 각 시장에서의 고객이 선호하는 종류의 감귤이 이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1994년도에 미국의 생식용 감귤의 수출은 기록적인 118만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감귤류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은 일본과 홍콩이다. 유럽은 그레이프후르트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감귤류 수출이 해외시장에서 최근 들어 성공적일 수 있는 것은 개선된 환율, 공격적인 수출촉진 활동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다.

네이블 오렌지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3%나 올랐으며, 그 물량은 3% 증가하였다. 이렇게 네이블 오렌지 가격이 높은 것은 시즌의 시작과 끝 무렵에 해외시장에서의 수요가 많았고, 이때 수출용 상품의 공급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 FOB가격이 약 20%나 상승하였다.

한편 1994년도 발렌시아 오렌지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나 낮아졌으며, 수출물량 또한 2%쯤 감소하였다. 평균 FOB가격은 전년도

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수출물량의 하락은 품질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오렌지를 수확했기 때문이다.

레몬의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 2% 낮아졌다. 연도 초에 해외시장에서의 재고가 많아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름 중에는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이었다. 이러한 초과수요는 평균 FOB가격의 2%상승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레몬판매량이 4% 감소하였다.

그라이프후르트의 수출물량은 평균 FOB가격의 7% 상승으로 인해 12%나 감소하였다. 이것은 플로리다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즌 말에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왔으며, 수출액은 6%나 작아졌다.

탠저린의 수출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118%나 증가하였다. 전년도는 혹독한 날씨 영향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생산하였다. 따라서 1993년도에는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었지만 1994년도에는 작황이 좋아서 품질 높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작황이 좋은 관계로 평균 FOB가격은 18%나 하락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탠저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더 이상의 가격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79%나 늘어났다.

〈표17〉 미국의 수출 현황

구 분	1993년도		1994년도	
	수 량 (천 Cartons)	금 액	수 량	금 액
일 본	12,456	\$ 202,532	11,522	\$ 193,918
홍 콩	6,371	60,403	6,207	62,199
싱가폴/말레이시아	1,528	13,141	1,709	15,601
Pacific-Other	1,058	10,222	1,394	13,563
유 럽	134	2,000	279	3,144
계	21,953	\$ 293,598	21,471	\$ 292,715

자료 :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 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온주밀감,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 온주밀감과 비슷한 품종인 클레멘타인을 수입해 왔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6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볼 때 1990년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물량이 점차 감소하여 왔으며, 1994년도에는 314톤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렇게 수입물량이 감소한 이유는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kg당 수입단가가 1989년도에 \$1.26에서 1994년도에 \$2.02로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18〉 미국의 감귤 수입동향

구 분	Mandarins ¹⁾		Tangeines ²⁾	
	수량(톤)	금 액	수량(톤)	금 액
1989년도	635	\$ 802,538 (\$ 1.26)	2,871	\$ 2,135,935 (\$ 0.74)
1990	989	\$ 1,700,808 (\$ 1.72)	7,016	\$ 5,634,832 (\$ 0.80)
1991	916	\$ 1,864,033 (\$ 2.03)	4,542	\$ 4,145,655 (\$ 0.91)
1992	615	\$ 1,315,285 (\$ 2.14)	5,967	\$ 7,566,778 (\$ 1.27)
1993	648	\$ 1,089,105 (\$ 1.68)	4,392	\$ 5,046,748 (\$ 1.15)
1994	314	\$ 634,372 (\$ 2.02)	12,644	\$ 14,149,281 (\$ 1.11)

¹⁾일본산 온주밀감임. ²⁾스페인산 클레멘타인임. ()안은 kg당 단가임

자료 :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 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한편 스페인산 클레멘타인의 수입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2.9배나 수입물량이 늘어났다. 즉, 1993년도에는 4,392톤을 수입하였으며, 1994년도에는 12,744톤을 수입하였다. 스페인산의 경우 수입단가를 보면 완만한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수입단가 측면에서 볼 때 일본산이 스페인산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페인산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에 일본산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 시에 수출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수출단가를 여하히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중국의 감귤생산 동향

중국의 감귤생산량은 국내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1980년대에는 1970년대와 비교할 때 4배나 증가하였다. 현재의 감귤 식재본수로 볼 때 1990년대에는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감귤류 생산은 1988년 256만톤에서 1995년 638만톤으로 예상되어 최근 6년간 생산량이 약 2.5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표 19>참조).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되어서 2000년에는 1,200만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배면적도 1990년 87만 ha에서 2000년에는 100만ha로 전망하고 있다(<표 20>참조).

〈표 19〉 중국의 연도별 감귤류 생산동향

구 분	1988	1989	1990	1993	1994	1995
감귤류	2,560	4,561	4,855	5,971	6,110	6,380 ¹⁾

¹⁾ 예상생산량임

자료: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표 20〉 중국의 감귤류 생산 전망

구 분	1986	1990	1993	2000
재배면적(ha)	72	87	112	100
생산량(만톤)	255	480	597	1,200

자료: 서귀포시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정보 통권 제26호, 1995. 11.

1993년 현재 중국의 감귤재배면적은 112만 정보에 생산량은 597만 톤으로서 재배면적기준으로는 세계 제 1위이지만 생산량 기준으로는 제3위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현재 1ha당 수확량이 5.3M/T로서 한국의 약 34M/T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단위당 수확량이 낮은 이유는 품종이나 관리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과수원이 거의 방임 상태에 가깝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기술수준의 향상

으로 생산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 중국의 감귤 수출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1992	1993	1994	1195
감귤류	47	61	118	150 ¹⁾

¹⁾ 예상 수출물량임.

자료: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 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중국은 최근에 들어서 감귤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에 약 4만 7천톤을 그리고 199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27%나 증가한 15만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측된다(〈표21참조〉). 주요한 수출대상국으로는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이다. 수출단가는 톤당 \$467로서 일본산이나 한국산에 비해 절반 값도 안되는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4) 스페인의 감귤생산 동향

스페인인 중국 다음인 세계 제 4위의 감귤 생산국이며, 유럽 최고의 생산국가이다. 스페인의 감귤류 생산량은 1995년도에 5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중 클레멘타인이 175만 톤으로 약 35%를 점하고 있다.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페인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즉, 1994년도에는 생산량의 약 58%인 275만 톤을 수출하였으며, 1995년도에도 생산량의 약 56%인 280만 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클레멘타인의 경우 생산량의 약 68%인 119만 톤을 1995년도에 수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클레멘타인은 해외시장에서 제주감귤과 경쟁이 되고 있는 상품이다. 제주감귤의 연간 수출물량이 1천 톤 내외인 것에 비하면 스페인에서 수출하는 클레멘타인의 양은 우리의 수출규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가공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이며,

생과용 내수시장 소비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30% 정도이다.

〈표22〉 스페인의 감귤류 생산 및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생 산 량	수출물량	가공물량	생과용 소비량
1992	4,559(1,340)	2,466(905)	645(202)	1,448(233)
1993	5,026(1,521)	2,950(1,150)	628(100)	1,631(271)
1994	4,755(1,622)	2,747(1,115)	667(172)	1,344(335)
1995 ¹⁾	5,030(1,751)	2,800(1,190)	656(180)	1,577(381)

¹⁾ 예측 수량임. () 안은 탠저린(클레멘타인)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USDA, World Horticultural Trade & U.S. Export Opportunities, July 1995.

IV. 감귤 수입개방대책 수립

감귤은 제주지역의 기간산업이라고 할만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즉, 감귤산업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이고, 농업조수입의 67%이다. 그러면 수입개방이 될 경우 감귤이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먼저 살펴본 후에, 지방정부에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한 감귤수입개방대책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제안을 해 본다. 또한 위기에 처한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공격적인 수출농업을 지향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한 촉진전략을 살펴보겠다.

1. 한국, 미국 및 브라질의 생산비 비교

한국산 감귤이 국제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 주요 감귤생산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생산비를 한국의 생산비와 비교

해 보려고 한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국제경쟁력은 생산비측면 즉, 가격면을 고려한 것이지 그 상품의 품질의 차이 등 비가격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은 제주밀감과 미국 및 브라질 산 오렌지와는 품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특색은 있으나 품질의 차이 등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1) 한국의 생산비

〈표 23〉은 1994-95 시즌에 생산한 제주감귤의 생산비 분석표이다. 한국의 10a당 생산비는 1,740,819원이다. 표준이 되는 과수원에서 10a당 2,591kg을 생산한다고 할 때 kg당 생산비는 672원이다. 한국의 생산비 계산에서 특이한 것은 미국 및 브라질과 달리 자가노력비 등이 생산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kg당 생산비는 년도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물론 이것은 비료, 농약비, 노임, 그리고 기타 투입물들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수입에 대비한 소득율은 73.6%로 높게 나타났다.

2) 미국의 생산비

한국의 생산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생산비 개념은 자가노력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영비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오렌지 주생산지역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이다. 그러나 플로리다산은 주로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식용은 주로 캘리포니아산이다. 따라서 미국의 생산비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가공용인 플로리다산보다는 생식용인 캘리포니아산의 생산비 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

〈표24〉는 1994-95시즌에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오렌지 1에이커당 생산비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오렌지 1에이커당 생산비는 \$3,170이며, 1카톤(Carton)당 생산비는 \$5.8이다. 따라서 kg당 생산비는 263원이다(1Carton=17kg).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공제한 순수익은 1에이커당 \$ 659이다. 미국 감귤원의 평균 재배면적이 40에이커이므로 총수익은 \$ 26,360(2천 30만원)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율은 17.2%로서 한국의 소득율과 비교할 때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할당금 중 SMO는 state marketing order하에서 강제적으로 수급되어지며, 이 돈은 생산자의 감독 하에 감귤연구위원회(Citrus Research Board)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현재 할당율은 필드박스(Field Box, 56lbs=25.4kg: 우리나라의 콘테이너 상자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표 23〉 제주지역 10a당 노지감귤 생산비 분석표(1994)

항 목	내 용	금 액
I. 조수입	2,591kg(1,035원/kg)	2,681,685
II. 경영비		
1) 중간재비		
- 비료비		189,488
- 농약비		99,092
- 광열·동력비		8,808
- 관수비		13,501
- 제재료비		130,163
- 소농구비		5,724
- 대농구 상각비		85,205
- 영농시설 상각비		7,531
- 수리비		23,368
- 조성비		70,603
2) 고용노력비	26.6시간(남4.9시간, 여21.7시간)	75,342
III. 인건비/용역비		
1) 자가노력비	164.8시간(남78.9시간, 여85.9시간) - 남 5,324원/시간, 여 2,272원/시간	615,228
2) 유동자본용역비		30,805
3) 고정자본용역비		54,350
4) 토지자본용역비		331,600
생산비(Ⅱ + Ⅲ)		1,740,819
순수익(조수입 - 생산비)		940,816
소득(조수입 - Ⅱ)		1,972,849

자료 : 제주도농촌진흥원

〈표24〉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1 에이커당 오렌지 생산비(1995)

항 목	내 용	금 액
I. 조수입	547carton(\$ 7/carton)	\$ 3,829
II. 경상비		\$ 1,253
서리(한해)방지비		\$ 175
비료비(Fertilizer)		\$ 22
잡초방제(Weed Control)		\$ 65
살충제(Insecticide)		\$ 129
관수비(Irrigation)		\$ 137
생장조절(Growth Regulator)		\$ 70
전정(Pruning)		\$ 89
토양복구비(Soil Amendmet)		\$ 66
살균제(Fungicide)		\$ 19
옆면분석비(Leaf Analysis)		\$ 25
장비수리비(Machinery Repair)		\$ 26
휘발유(Fuel-Gas)	12.60has/Acre(\$ 8.50/hr)	\$ 20
인건비(Machine)	9.42har/Acre(\$ 7.00/hr)	\$ 107
인건비(Machine)		\$ 66
기타		\$ 237
II. 수확비용 :		\$ 584
- 수확(Picking)	28.5Bin(\$ 18.75/Bin)	\$ 534
- 운송(Hauling)	28.5Bin(\$ 1.75/Bin)	\$ 50
III. 할당금(Assessments) :		\$ 40
- SMO ¹⁾		\$ 12
- CCEA ²⁾		\$ 28
IV. 자본이자	11.61%	\$ 86
V. 간접비		\$ 515
- 사무실비용		\$ 54
- 책임보험비		\$ 3
- 재산세		\$ 93
- 재물손과보험		\$ 66
VI. 총현금비용/Acre		\$ 2,479
총현금비용/crth		\$ 4.53

항 목	내 용	금 액
VIII. 총비현금간접비용		\$ 691
— 건물		\$ 36
— 기름탱크&펌프		\$ 13
— Shop Tools		\$ 15
— 토지		\$ 149
— 전정기계		\$ 2
— 과원조성비		\$ 222
— 관수기계		\$ 106
— Wind Machine		\$ 105
— 장비		\$ 43
VIII. 총생산비/Acre		\$ 3,170
총생산비/Crth		\$ 5.8

1)SMO: State Marketing Order

2)CCEA: Central California Eradication Agency

1 Carton=37.5lbs(약17kg)

자료 : O'Connell, Neil, Karen Klonsky, Mark Freeman, Craig Kallsen, and Pete Livingston, *Sample Costs to Establish an Orange Orchard and Produce Orang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operating, 1995.

됨)당 2.6cents(20원)이다. 이렇게 수집된 돈은 감귤산업연구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CCEA(Central California Eradication Agency)는 오렌지의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감귤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인 Tristeza 병을 박멸시켜서 캘리포니아 감귤 주산 지역을 Tristeza 병이 없는 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박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CCEA를 위해 1에이커당 \$28가 부과된다.

시간당 노임은 장비 조작 등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숙련자인 경우 \$8.50을 지급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현장 작업자인 경우 시간당 \$7.00를 지불한다.

3) 브라질의 생산비

브라질의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2-93시즌에 오렌지 1 상자(90lbs=40.8kg)당 생산비는 \$1.8이다(〈표 25〉참조). 이것을 kg 당 생산비로 계산해 보면 4.4cents이며, 이것을 다시 원화로 환산할 경우 34원이다.

〈표 25〉 브라질 오렌지생산 농가의 생산비분석표

구 분	1987-88	1988-89	1991-92	1992-93
樹上價格	\$ 2.13	\$ 3.77	\$ 2.13	\$ 0.34
生産費	\$ 1.17	\$ 1.24	\$ 1.8	\$ 1.8
純收益	\$ 0.96(45.1%)	\$ 2.53(67.1%)	\$ 0.33(15.5%)	\$ -1.46

()내의 숫자는 순수익률을 나타냄

자료 :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The Situation and Outlook for Brazil's Citrus Industry*, 1989.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4. 8.

브라질 오렌지 생산의 90%를 생산하는 상파울로주에서는 가공용 오렌지 상자당 가격이 전년도에 \$2.13에서 \$0.34로 폭락하였다. 따라서 상자당 평균생산비가 \$1.8인 농가에서는 약 \$1.5의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브라질의 오렌지 생산농가는 전부 파산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생산농가와 가공공장간에 상자당 \$1.5로 사전에 납품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파산을 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렌지 산업은 그간 꾸준히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그동안 축적된 판매교섭력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하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 미국 및 브라질의 생산비 비교

한국, 미국 및 브라질의 kg당 감귤 생산비는 각각 672원, 263원, 그리고 34원이다. 즉, 한국의 감귤 생산비는 미국에 비해 약 2.5배

그리고 브라질에 비해 약 20배나 된다. 그러나 생산비만을 단순히 비교해서 제주감귤이 수입 감귤류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품이 수입되어 국내에 들어 올 때는 상·하역비, 운임, 관세, 보험료, 조세 등 추가적인 비용들이 실제 상품가치보다 더 높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CIF가격과 관세를 추가시킨 수입오렌지의 가격이 국내산 감귤의 도매시장 경락가격과 비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가격경쟁력 비교

현재 우리나라는 Orange류를 일부 수입하고 있으나 1995년도에 처녀수입하였기 때문에 오렌지 수입가격 동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 수입해왔던 그레이프후르트인 경우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지만 오렌지 수입가격에 관한 자료는 분석의 편의상 일본 것을 이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서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일본의 오렌지 수입가격(CIF가격)을 한국산 감귤가격과 비교하는데 이용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본다.

〈표26〉 한국의 경락가격과 그레이프후르트 및 오렌지의 수입가격 비교

(단위 : 원/kg)

년 도	평균경락가격	그레이프수입가격	오렌지수입가격(일본)
'89	402	590	—
'90	895	767	767
'91	1,010	776	1,366
'92	512	765	722
'93	810	709	759
'94	1,208	678	—

(자료) 경락가격 : 농협중앙회 제주도지회,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1995

그레이프후르트 수입가격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조사월보, 1995

오렌지수입가격(일본) : 日本食品流通研究會, 1994年版食品生産輸入消費, 1994. 9.

약 72만톤을 생산하였던 1992년의 그라이프후르트 Kg당 수입단가는 765원이고, 오렌지는 722원이다. 이것은 물론 CIF가격이며, 여기에 현재 정해져 있는 오렌지 수입관세를 50% 추가시킨다면 각각 1,148원, 1,083원이 된다. 그런데 제주감귤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1992년인 경우 최근 들어 가장 낮았던 512원이었다(〈표 26〉 참조). 그러므로 제주감귤은 생산비면에서 미국, 브라질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열세에 있지만, 가격 면에서는 수입오렌지류와 비교해 볼 때는 열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비가 미국, 브라질에 비해 훨씬 비싼데 수입가격이 경락가격보다 비싼 이유중의 하나는 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감귤농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출하하기 때문이다. 1992년산인 경우 가격 면에서 수입 그라이프후르트와 비교할 때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총조수입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액수인 2,623억원이었다. 그러므로 수입개방으로 인해 물량이 늘어나 1992년 가격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 피해액은 엄청나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약 55만톤을 생산하였던 1994년도에 제주감귤의 도매시장 경락은 최근 들어 가장 값이 좋았던 1,208원이었다. 동년도에 그라이프후르트의 수입가격은 678원이었으며, 수입관세를 포함한 가격은 1,017원으로서 미국 및 브라질과 비교할 때 생산비는 물론이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생산량 조정목표로 삼고 있는 60만톤 내외를 생산하였던 1993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약 62만톤을 생산하였던 1993년의 경우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810원이었으며, 수입가격은 그라이프후르트와 오렌지가 각각 709원, 759원이지만 여기에 관세를 포함할 경우 1,064원, 1,139원으로 가격 면에서 제주산 감귤이 미국산과 경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에게도 적정가격이 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산량 조정이 농가에 적정가격 보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2001년의 발전지표

정부는 1994~2001년까지 8개년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을 위해 총 7조 3,9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2조 2,403억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위해 쓰여 질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감귤수입개방대책의 수립을 위해 1994~2001년 8개년간 총 9,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면 투자가 완료되는 2001년에 감귤산업이 지향하는 발전지표를 살펴보겠다.

1) 적정생산

밀감 생산의 과잉으로부터 실질 농가수취가격 수준을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밀감의 적정생산량을 650천 M/T 이내로 정하였다. 이를 위해 간벌, 적화, 적과는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원지정비 및 부적지정비를 시행하면서 지배면적 20천 ha를 유지한다. 부적지 과원의 정비 목표는 2,500ha이고, 정비대상으로는 표고 200m이상의 고지대 과수원 그리고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지역 중 표고 110m 이상 동해 상습지역이다.

2) 품질향상

제주감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당도 12BX0와 산도 1.0%이하인 상품의 생산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2001년까지 품종갱신 목표는 5,000ha이며, 품질 불량수를 갱신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즉, 과거 60—70년대에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품종 중 불량수를 우량 조생 온주 계통으로 갱신한다. 그리고 간벌 목표는 10,000ha이며, 시설재배 목표는 1,200ha이다.

또한 극조생, 조생 및 만감류 계통을 확대하고 보통온주를 줄이는 방향으로 품종체계를 조정하려고 한다(〈표 27〉 참조). 품종체계의 조정을 통해 시기별 출하량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추게된다. 특히 품종체계의 조정으로 출하시기 및 수확노력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홍수출하 방지로 유통처리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향상을 위해 토양 및 수채영양진단사업을 추진한다. 즉 품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토양 조건과 영양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분석과 잎분석을 전수 실시하여 토양관리 및 시비기준을 설정하고 처방하므로써 품질의 향상과 경비를 절감한다.

〈표 27〉 품종체계 조정

(단위: %)

구 분	극 조 생	조 생	보 통	만감류
'90년 기준	6	48	44	2
2000년	10	65	20	5

자료 : 제주도

3) 생산비 절감

생산비 절감은 제주감귤의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 22% 기계화 촉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약제 살포작업의 기계화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10,000ha) 고성능방제기 500대를 도입한다. 또한 과원내 운반시설을 설치한다. 즉 경사제나 출입이 어려운 감귤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생산자재 및 과실운반을 생력화시켜 경비를 절감한다.

4) 유통기반 시설의 확충

성출하기에 제주감귤의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기간인 8개년간 다음과 같은 유통기반 시설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장시설의 확충(222천평→360천평), 선과시설의 대형자동화(34개소), 예조시설의 설치(400천평) 등이다. 감귤원내 간이 예조시설 설치로 상품성을 높이고 저장능력을 향상시킨다.

5) 수요확대

제주감귤의 국내 소비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군납은 3,000 M/T 이상을 하고, 대도시 직판장 10개소를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6) 수출시장개척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수입에 대응하여 제주감귤도 적극적으로 수출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20천 M/T 이상 수출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즉 캐나다에서 미국, 일본, 동남아, 동구권, EU 등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6개소의 수출단지를 조성한다.

7) 관련산업육성

제주지역의 지역총생산에서 감귤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유기배합비료공장(6개소), 감귤박 처리 공장(5개소), 포장상자공장 시설개선(1개소), 가공제품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4. 감귤유통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1) 생과용 감귤의 출하조정

생과용 감귤의 시기별, 소비지역별 출하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귤은 성출하기인 10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전체 생산량의 약 80% 이상이 집중출하가 됨으로써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처리 역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지역별 감귤출하의 과잉, 과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홍수출하

를 조절하여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저장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재고량과 월별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가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출하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1996년 구정 이후에 감귤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실제 저장량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농가에서 출하를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장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저장물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출하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감귤저장과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문제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장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둘째, 언제까지 저장할 것인가, 셋째, 저장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넷째, 누가 저장을 할 것인가 등의 문제이다. 이들 문제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저장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성출하기와 저장출하기를 비교해 볼 때 저장출하기의 출하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991년 연구한 결과(필자 이름, 참고문헌 ??)에 의하면 생과용 출하량의 약 26% 정도가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저장규모로 나타났다. 물론 1991년 이후에 UR타결, WTO체제의 출범 등 농산물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한 저장규모에 대한 문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저장비용을 보상하고도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저장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언제까지 저장을 하여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저장기간을 마냥 연장한다고 해서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 익년 4월의 경우 감귤가격은 그 어느 시기의 월별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장기간 저장에서 오는 감량의 증가로 상품가치가 하락되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3월 중순이후 딸기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신선도면에서 떨어지고 계절과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장감귤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저장출하기간을 3월말까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볼 때 저장출하는 익년 2월, 3월 즉, 2개월 동안으로 한정되어진다. 최근 4개년 동안의 익년도 2월, 3월의 월평균 출하비율을 보면 각각 75%, 25%였으며, 감귤가격은 3월의 경우에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저장출하규모확대와 더불어 3월 출하규모를 더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저장출하규모 확대를 통해 출하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장비용의 감소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자연·부패감량의 감소, 관리개선, 저장기술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어 지속적인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그러면 과연 누가 저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성출하기의 가격과 저장출하기의 가격차가 저장비용을 보상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누가 저장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 시기간의 가격차가 저장비용의 일부만을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이거나 저장비용조차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누가 저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1994년말 현재 저장고보유농가 수는 전체농가의 44.5%에 불과하다. 출하량을 시기별로 분산시키면서 감귤농업의 이익증대는 물론이고 유통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저장출하규모를 증대시킬 경우 저장고 보유농가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출하량의 조절로 인한 성출하기 가격상승으로부터 오는 이익은 모든 농가에게로 고루 분배되어지나, 저장출하기 감귤가격하락에서 오는 손실분은 전부 저장고 보유농가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때 저장출하의 확대에 많은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품종의 개발

생산시기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연구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품종의 개발을 통해 생산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수요 시기도 분산시켜 수확기에

구인난의 해소는 물론이고, 가족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 감축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품종개발을 통해 주년생산체제로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시설감귤 하우스 조성

시설감귤 하우스 조성을 위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신품종 개발을 통한 생산시기의 분산도 출하조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존의 노지감귤을 하우스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출하조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감귤 재배면적의 확대에 앞서 적정 생산량 및 수요량에 관한 연구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서 시설감귤하우스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자금을 대폭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

4) 가공용 감귤

가공용 감귤은 수급조절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파치=가공용 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농가에서 생산만 하면 파치든 뭐든 가공용으로 수매될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감귤의 품질저하를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제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을 하여서는 우리 감귤농가 전부가 공멸하는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적과를 철저히 하여 가공물량을 축소시키고, 가공용은 불량품의 처리수단이 아니라 수급조절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철실히 요청된다.

5)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생식용의 경우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일반 상인을 통한 출하보다도 비중이 작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지도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시

장고섭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출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6) 대형선과장의 설치

주산지별로 대형선과장의 설치가 요구된다. 저온저장고시설 및 상온저장고시설의 확충은 물론이고 대량유통시대를 맞이하여 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완벽하고 현대화된 대형선과장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선과장의 설치에는 유통비용의 절감과 공동출하의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7) 수송체계의 개선

수송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송체계의 개선이란 생산된 감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소비지까지 수송되어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송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수송비의 절감을 통한 수송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송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수송비 절감을 위한 상품성 제고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수송도중에 취급상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부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이용한 수송 등 수송기술의 혁신이 요구된다.

둘째, 수송차량 및 선박의 확보가 필요하다. 수송물동량에 비례해서 운수업체 면허차량 및 선박수를 늘려야한다. 또한 감귤 및 단협의 차량보유도 증대시켜 조합원의 수송공동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감귤수송 차량 및 선박확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만시설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수출용 컨테이너 수송전용선의 부두접안시설이 미비하여 운송비용을 절감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접안시설을 확충하여 제주항에서 수출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감귤의 수출촉진 전략

우리가 미국으로 온주밀감을 수출 할 때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Kg 당 2.2센트(약 18원)로 종량세가 부과된다. 이것을 관세율로 바뀌서 말한다면 약 2.5% 정도인 저율관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로서 우리 나라보다는 훨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제반여건의 조성을 전제로 한다면 이들 국가로의 수출전망은 밝다고 본다. 여기서는 미국시장의 개척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수출 시장 확대방안에 대해 논해 본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상품시장을 대표하는 표본시장으로서 미국에서 팔리는 상품은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촉진활동이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도 자국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품목별로 다각적인 해외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해외무역청에 의하면 미국과일 수출증가의 원인을 고급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과감한 수출 촉진활동, 기술 개발 및 수송개선, 수입국의 수입제한 축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출 촉진활동임은 말 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수출 잠재성이 큰 미국시장의 공략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 및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출 초기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살아있는 현지시장정보의 수집이다. 미국 내에서 1차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소비자 계층은 한국 교포 이외에 중국계 등 동양계 이민사회이고, 2차적인 대상은 히스패닉, 흑인 그리고 서양계 미국인들이다. 이들 소비자계층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기호와 경쟁관계 등을 검토하여 시장 전망 또는 시장확대 가능성을 타진한 후에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 전시회에 제주산 감귤을 출품하고,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에서 청과업을 경영하는 재미 한국 교포들을 초청하여 제

주산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감귤을 시식하는 코너 등을 이용한다. 또한 수출되는 제주산 감귤은 「한국 감귤」(Korean Mandarin)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물량 생산공급을 위한 대책이 서야 한다.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출단지의 조성을 서둘러서 완료해야 할 것이다. 현재 남원읍 의귀리에 55ha 규모로 1개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여기서 약 1,650톤 정도를 생산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규격 사이즈를 선별해서 수출하려고 할 때, 그 물량은 약 1,000톤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2001년까지 총 6개 단지를 조성 할 계획을 적어도 오렌지가 완전히 수입개방이 되는 97년 7월까지의 앞 당겨서 단지 조성을 끝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입업체는 다변화 시켜야 한다. 과거 캐나다로의 감귤수출은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한 업체에게만 수입권을 줌으로써 수출가격 및 수출물량 협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켰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출은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수요·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 생산자 단체는 수출물량을 확보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해 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수출창구는 일원화시키되 수입업체는 다변화 시켜서 한 업체에게만 수입권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시장은 대단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부, 중부, 서부지역으로 나누어서 수입선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제주산 감귤의 약용효과를 홍보한다. 미국인들은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가 그 어느나라보다 높은바, 제주산 감귤의 성분을 약리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약용효과가 있음을 집중 홍보하면 수요창출도 기대된다. 선키스트의 경우 40lb박스당 20센트(약 154원)의 광고비용을 일률적으로 조합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돈은 미국내 광고비용으로는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의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도 쓰여진다. 우리도 제주감귤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를 조성해서 1997년 7월이후의 전면적인 오렌지 수입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홍보는 조합을 통해 판매한 감귤과 상인을 통해 판매한 감귤과의 차별화까지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수출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국내에서의 검역과 세관통관이 끝나서 선적만 이루어지면 수출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간주해서는 안된다. 공산품의 경우도 상품을 판매한 후에 A/S(After Service)를 철저히 하게 하는 회사의 제품을 믿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제주산 감귤의 경우도 수출 후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 해외 수입상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로부터 감귤을 수입해 가는 업자들이 자국 내에서의 수입통관은 물론이요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까지도 도와 줌으로써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수요처를,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다져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대미 수출시의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을 강화시켜야 나아가야 한다. 대미 수출시 까다로운 검역 절차, 수출단지 조성시의 완충지대(Buffer Zone)설정, 날개 포장 등 비관세 장벽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협상을 통해 날개 포장 문제가 해결되어 인력난으로 포장의 어려움은 해결되었으나 그 외의 장벽도 정부에서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미시장 개척자금 및 수출보전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과실류 시장 개척자금을 운용하여 제주산 감귤의 대미시장 개척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출손실 보전기금은 감귤의 수급불안으로 국내가격이 수출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상회할 경우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상기한 대미수출 촉진전략 외에 세계시장에 제주감귤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새로운 시장개척 또는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주밀감의 수출은

캐나다와 미국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수입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 감귤을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감귤 수요의 기복을 줄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수출컨테이너 전용 부두접안시설이 미비하여 검역은 제주검역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통관은 부산세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주세관을 통한 통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항만시설의 미비로 제주항에서의 직수출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검역, 통관 등 수출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제주지역에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제주감귤의 가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 등 수출을 위한 제반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계가 가상공간 안에서 1일 생활권으로 묶여 지구촌을 넘나들며 쇼핑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제주감귤도 세계적인 정보의 흐름에 편승하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 및 판매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제주감귤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 수출확대가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 유통시장조사, 수입국의 기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수입상·유통업체 등 구매사절단을 유치하여 현장안내 및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의 오렌지 생산자 단체인 SUNKIST는 생식용 감귤의 국내 및 국외판매, 가공품의 국내외 판매를 위한 시장촉진의 주체가 되어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시장조사, 홍보활동, 물류기술개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유통정보의 제공 등 모든 개

별 마케팅 수단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매우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국내 및 국외 시장추진 활동의 주체는 감귤이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감귤의 수출촉진을 위해 '감귤수출협의회'를 구성한다. 농감협, 농수산물유통공사, 학계, 지방정부, 수출업체 등이 참여하는 '감귤수출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것의 주요기능은 수출촉진에 대한 기본방향정립과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과당경쟁의 사전조정 및 시장정보의 교환, 수출입에 대한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집 등이다.

마지막으로, 검역의 내실화 및 충실을 기해야 한다. 검역절차에 따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감귤의 관리 철저는 물론 검역의 내실화 및 충실을 기해야 한다. 1995년도에 미국으로의 감귤 수출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검역 문제이다. 검역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시장이 제일 까다롭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제주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감귤산업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생존전략으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수출확대 방안에 관해 알아보았다.

제주산 감귤의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농가들은 우리 감귤도 수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절대로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단순 생산수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해외시장정보 활용체제를 조직화하여 해외시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의 지속적인 파견으로 수출시장을 캐나다와 미국 위주에서 동남아시아, 유럽지역으로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감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생산농가의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운송 및 수출입절차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수

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통해 수출신용도를 증진 시켜야 한다. 아울러 대미 수출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관리철저는 물론이고 정부의 외교적인 교섭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위기에 처한 제주 감귤산업을 살리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감귤농가, 생산자단체, 정부, 연구기관, 학계가 모두 지혜를 모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려야 할 귀중한 시점이다. 따라서 96년 한해는 97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감귤류 수입개방을 보다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태세를 갖추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

1994 대외협력위원회 보도자료(2. 1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1994 농협조사월보, 8월호.

1995 농협조사월보, 12월호.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1995 '94년산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서귀포시 농촌지도소

1995 농업기술정보, 통권 제26호(11월호).

제주대학교 제주농축수산 생산가공연구센터

1996 고품질 감귤생산 기술개발과 수출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1995년도 연구결과 최종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UR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日本食品流通研究會

1994 1994年版 食品 生産 輸入 消費.

Florida Department of Citrus

1989 *The Situation and Outlook for Brazil's Citrus Industry.*

O'Connell, Neil, Karen Klonsky, Mark Freeman, Craig Kallsen,
and Pete Livingston

1995 *Sample Costs to Establish an Orange Orchard and Produce
Orang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operating.

U. S. Dept. of Agriculture

1995 *Citrus Fruits-1995 Summary.*

1995 *World Horticultural Trade & U. S. Export Opportunities.*

A Study on the Counterplan of Cheju Citrus Industry from the Result of Market Liberalization

Kim, Kyung-Taeg

Kang, Ji-Yong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overall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present the counterplan to improve the marketing structure and to expand the citrus export. Specifically, for the improvement marketing structure, it is achieved not only by managing the shipment about the proper shipping time and the consuming region for the fresh fruit, but also by expanding the size of joint shipment.

Domestically, in order to expand the citrus export, it has to be converted as the system of producing goods preferred by overseas consumers. Internationally, for the export promotion, local government and producers' association have to play a major role to do the market survey and the market promotion. And also unify the export window and diversify the importers. Further secure the export quantity.